

보도설명자료

(‘13.12.23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중기 절반 “한·중 FTA 대책, 없거나 모른다”
(‘13.12.23, 경향신문)

1. 기사내용

-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한·중 FTA에 대하여 ‘대비방안이 없거나’나 ‘모른다’로 대답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위 기사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한 것으로 정부가 한·중 FTA 보완대책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일부 오해 소지가 있어 설명자료를 배포합니다.

- 한·중 FTA는 현재 협상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완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,
 - 지리적 근접성, 시장의 거대성 등을 감안, 정부는 취약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
- ※ FTA 국내보완대책은 FTA가 타결된 이후 이에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수립되는 것임
(‘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’ 제11조, 제13조)
- 참고로, FTA 이행으로 인해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일정 기준 이상 감소한 기업에 대해 융자 및 상담제공을 지원하는 ‘무역조정제도’를 현재 시행 중
- ※ 관련 문의 : 국내대책과 최호천 과장(044-203-4140)